

통권 제 219호

강남. 라 00943

2566
2022

01

신년사
이웃의 따뜻한
벗이 되어주길



살다보면
1년 · 364일



마음의 등불
권력과 망상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충지중

변천^{變遷}은 가상^{假想}·불변^{不變}은 실상

만상^{萬相}은 무상^{無常}하여 찰나^{刹那}에도 변^變하고 있다. 우선^{于先} 자기^{自己} 자신^{自身}도 십년^{十年} 전^前의

자기^{自己}를 볼 수 없고, 작년^{昨年}의 자기^{自己}를 만날 수 없고, 어제의 자기^{自己}를 만날 수 없다.

마음과 행동^{行動}도 자꾸만 변^變하므로 아침의 나는 벌써 저녁의 내가 아니다.

이것이 무아^{無我}요, 공^空이다. 그러나 실상^{實相}은 불변^{不變}이요, 가상^{假想}만이 변^變한다.



십선성취 _ 32

새해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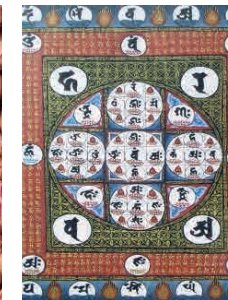
_ 남해 정사



요리TALK! 정보TALK! _ 64

호랑이콩

_ 김조은



육자의계 염송 _ 68

진언^{眞言}이란?

_ 위드다르마 편집실

04 불교이야기

08 살다보면

14 산책

16 향유

20 아름다운 세상

24 마음의 등불

28 지혜의 뜨락

32 십선성취

36 죽비소리

40 씨앗 한 알

44 카일라스

50 디딤돌

54 차향기

58 생각하는 시간

62 결망에 담긴 이야기

64 요리TALK! 정보TALK!

68 육자의계 염송

71 함께보는 불교미술

74 뜻 바꾸기

76 컬러링 만다라세상

78 법화일정

보시의 종류와 방법 _ 화령 정사

1년, 364일 _ 이옥경

겨울 강변 _ 김대곤

마음가짐 _ 서령 정사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6가지 마음 습관 _ 묘원화 전수

권력과 망상 _ 이승현

사람 중심의 사회 _ 방귀희

새해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_ 남해 정사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_ 김봉래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라 _ 법상 스님

카일라스의 순례 _ 김규현

건포도 먹기 명상을 해봅시다 _ 신진옥

차꽃 나무 _ 김정애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_ 해룡 한태평

구두쇠의 죽음 _ 법일 정사

호랑이콩 _ 김조은

진언^{眞言}이란? _ 위드다르마 편집실

불화^{佛畵} _ 위드다르마 편집실

수습나^(suṣumṇā) _ 김재동

위드다르마

With Dharma

다르마^{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불기 2566년 임인년 壬寅年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신년사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이
암울할 것만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모두의 지혜와 코로나 극복의 서원이 열어낸
희망의 새아침입니다.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이
모든 가정에 평안과 건강으로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임인년 새해는
용맹과 위엄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호랑이의 기운으로
이웃의 따뜻한 베풀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들이 따뜻한 오늘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현현하시는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을 빌려
그늘진 곳에 빛이 되어주는
새해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도합시다.

불교총지종 제20대 통리원장
우인 정사 합장

보시의 종류와 방법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보시의 종류로는 보통 삼종시三種施라고 하여 재시, 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를 듭니다. 재시財施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재물로써 보시하는 것입니다. 법시法施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출가자가 일반인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뜻을 풀이해 주며 불도로 이끌어 주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베푸는

것도 법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누구한테든지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모두 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자오복경賢者五福經》이라는 경전에는 법시의 다섯 가지 공덕에 대해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통이 있는 사람을 보고 현자賢者が 반드시 법을 설하여 내 법을 믿게 하면 그 인연으로 법을 설한 사람에게 다섯 가지 복덕이 있다.

첫째는 살생하는 이에게 살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한 까닭에 장수하게 될 것이요,

둘째는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않게 하고 보시하도록 한 까닭에 크게 부유해질 것이요,

셋째는 법을 듣는 이가 온화한 안색으로 기쁜 마음을 내게 하는 까닭에 단정端正함을 얻을 것이요,

넷째는 법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승을 공경하여 받들도록 하는 까닭에 명예가 멀리 드러나며,

다섯째는 법을 듣는 이가 매우 깊은 법과 미묘한 지혜를 깨치도록 하는 까닭에 총명하고 큰 지혜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법시를 베풀면 많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법시를 베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불교의 힘이 미약한 곳에서는 모든 불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법시를 베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장점을 말해 준다는 불교에 관한 좋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 불교의 공덕을 노래로 불러주는 것 등이 모두 법시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외시^{無畏施}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재난이나 기아, 질병, 전쟁, 폭력 등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을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을 무외시라고 합니다. 무외시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서 타인을 위하는 모든 행위가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생구제의 모든 행위가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는 데에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복밭이 될 곳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도 터를 잘 보고 씨를 뿌려야지 터무니없는 자갈밭에 씨를 뿌려 봐야 싹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시를 하는 데에도 복전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보시를 하느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의뢰심만 길러 주고 게으름만 조장해서 그 사람을 도리어 망치게 된다면 그런 보시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나야 보시했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는 알게 뭐냐는 식으로 하는 보시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에 가서 하는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한 것

이 불교 발전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엉뚱한 일에 쓰이거나 그 때문에 사찰의 분규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보시이고 도리어 죄업을 짓는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내가 하는 보시가 정말 불교 발전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는지를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고 보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 불교계에 불교 도서관 하나도 변변한 게 없는 실정입니다. 복 짓는답시고 불상만 크게 모실 줄 알았지 불교 인재 키우는 데는 더 없이 인색한 것이 우리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불상을 모시고 탑을 올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불교의 인재를 키우고 불교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불사라고 하면 절 짓고 불상 모시고 탑 세우는 것만 할 줄 알았지 그 속을 채울 인재 양성은 등한시한 결과 오늘날 우리 불교가 이렇게 미약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통찰하시고 어디다가 어떻게 보시해야 우리 불교를 잘 발전시킬 수 있을 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 가운데에서 불교가 가장 열세로 치우친 지금의 현실이 워낙 안타깝워서 보시라도 제대로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어서 복밭이 될 만한 곳에 복의 씨를 뿌리시라는 말씀입니다.

1년, 364일

이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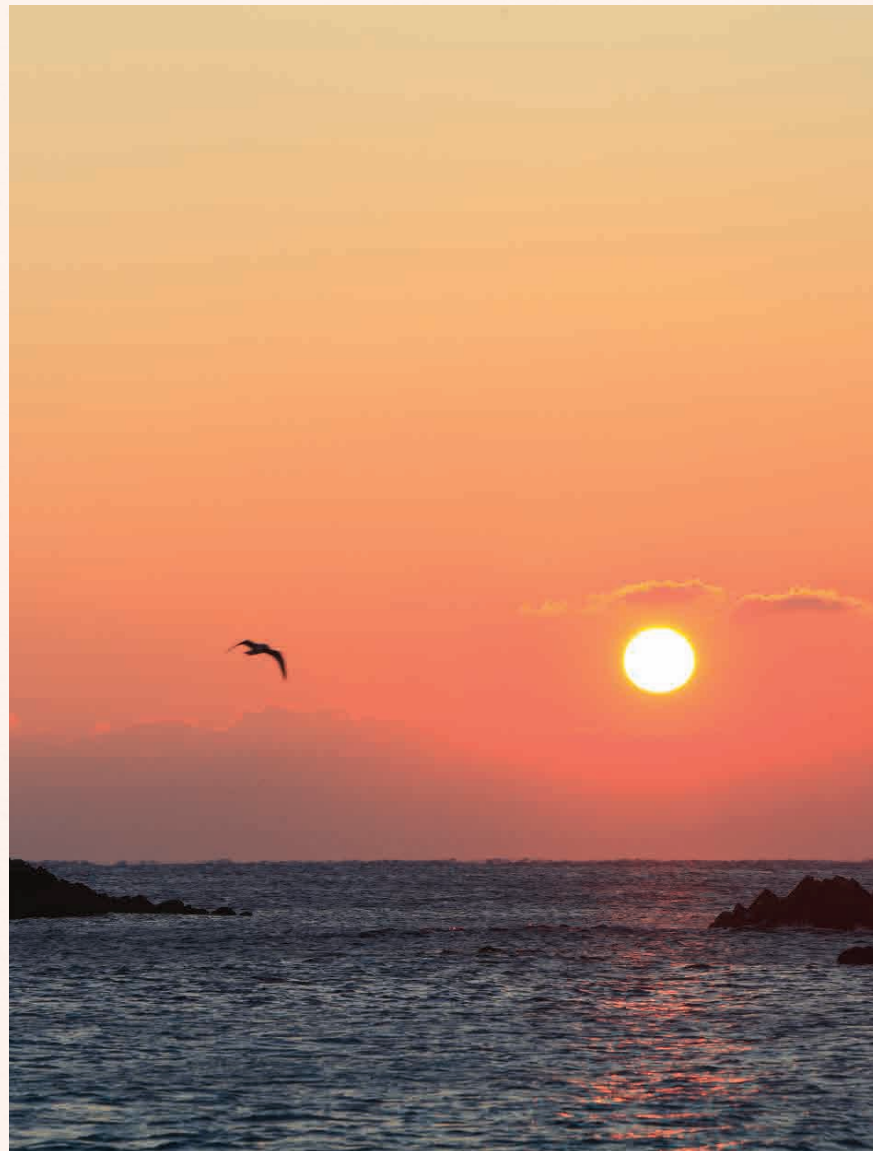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아침에 일찍 잠이 깼다. 여느 때와 달리 창밖이 유난히 흰해서 내다보니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하늘이 품고 있는 빛깔이다. 얼른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 보니 해 뜨는 시간 7분 전. 마치 오래전부터 작정이라도 했던 것처럼 해돋이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서둘러서 바닷가로 차를 달리면서 해야, 1분만 늦게 떠라, 주문을 외운다.

바닷가 아무 곳이나 차를 세운다. 하늘빛은 더욱 붉어지고 바다도 검푸른 파도에 붉은 물감을 풀고 있다. 내 가슴에도 따뜻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수평선이 열리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붉은 해가 떠오른다. 희뿌연 어둠을 밀어내며 눈부신 햇살이 온 누리를 밝힌다.

또다시 아침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 새 아침...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빌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은 해돋이가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해넘이의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넘이는 온유하고 감성적이다. 서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하루, 한 생을 마감하는 노을은 깊고도 그윽한 여운으로 가슴을 적신다. 소명을 다하고 미련 없이 스러지는 빛, 긴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아침을 준비하는 적멸^{寂滅}의 시작은 그래서 또 아름답다.

자, 여기서 찬물을 한번 끼얹어 보자. 이름하여 낭만에 초 치는 소리가 되겠다. 해돋이는 해의 윗부분이 수평선에 접하면서 마침내 수평선 위로 둥실 떠오르는 순간을 가리키는 기상용어다. 반대로 해넘이는 해의 아랫부분이 수평선에 닿는 순간부터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를 말한다. 과학적으로는 해돋이나 해넘이의 개념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 까닭은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해의 마지막 날 해넘이를 보기 위해, 또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산과 바다로 향한다. 지는 해든 뜨는 해든 이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해는 어제의 해가 아니다. 이 시간만큼은 지난 한 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 가득 새로운 소망과 다짐을 품어도 좋다. 마음속 묵은 때가 씻겨 나가고 기원한 대로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강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밀리는 길조

차 기꺼이 감수하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로 몰려드는 것이겠지만...

아, 이런! 이렇게 미련할 수가! 오늘 아침에야 깨닫게 되다니. 남들이 그리도 부러워하는 해돋이의 명소 동해를 앞마당처럼 지척에 두고도 1년, 365일이나 되는 그 많은 날 중 해돋이를 보러 나온 날이 새해 첫날 단 하루뿐이었다니. 나 자신의 무심함과 게으름이 놀라울 지경이다.

예정에도 없던 해돋이를 보면서 느낀 건 평범한 날 마주한 해돋이의 감동도 새해 첫날, 첫해의 그것 못지않게 감동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이 수없이 많이 피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눈길조차 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엇을 보았다고, 무엇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해넘이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네는 해가 정동진 쪽에서 떠서 대관령 쪽으로 진다. 서해안처럼 이름난 해넘이 명소는 아니지만 저녁나절이면 대관령 쪽 하늘이 별경게 물들면서 해와 구름이 빚어내는 빛의 향연이 펍 아름답다. 그러나 그 또한 어찌다, 가끔 한 번씩 보게 된다. 그것도 오다가다 우연일 때가 많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저 먼 서해 왜목마을까지 달려가 해넘이에 실어보냈던 감사와 위로를 또 그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해넘이가 가는 해의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닌 것처럼 해돋이 역시 새해 첫날에만 생기는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해넘이가 그러하듯 해돋이 역시 1년 365일 중 나머지 364일에도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었을 터.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해는 맑은 날은 물론이려니와 구름 저 너머에서도,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어김없이 뜨고 지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리 춥지 않으니, 그리 서두르지 않아도 좋으니, 갈매기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모래사장을 걷는다. 온 사위를 물들였던 붉은 빛이 걷히고 제 빛으로 빛나는 하늘과 바다의 순응, 거기에 쉽표를 찍듯 오가는 배의 여유로움 때문인가. 문득 해넘이나 해돋이 하루에만 열광하느라 1년을 꽉 채우고 있는 나머지 364일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빛나는 스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무대 아래서 땀 흘리는 수많은 이들의 수고를 무시한 것 같은 민망함, 웅장한 건물의 위용에 찬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것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나 기둥의 존재를 헤아려 본 적조차 없는 데서 오는 계면적임 같은.

그 하루의 수많은 다짐처럼 매일 새로운 각오로 364일을 보낼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염원이 꽃처럼 피어나 세상은 배려와 감사로 넘치고, 저마다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이 알찬 결실이 되어 훨씬 더 풍요로울 텐

데 말이다. 하지만 열 번 스무 번 반성과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니 중요한 것은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다.”라는 『중부경전』의 말씀이 달리 있겠는가.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코로나19로 해넘이·해돋이 행사가 대폭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가는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 첫날의 첫해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의 해넘이·해돋이 명소를 찾아 새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부디 그 하루의 감동이 나머지 364일의 해넘이와 해돋이로도 꼭 이어질 수 있기를.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86,400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새로운 출발이고 영원한 축복이다.



양상한 가지
비워져버린 저 건너편 산

그래도 따스한 햇살
그 사이에 훈훈한 바람은
날개짓으로 시선을 스치고

잔뜩 긴장한
태화강 물위로 겨울새
햇살을 먹는다

강 건너
남쪽을 바라보는 집
한껏 온기를 담고

길어져 가는 내 그림자
물가에 담겨지기 일보전
참 차가워라

까르르 까르르
난데없는 아낙들의 수다가 지나간다.

무엇이 저리도 웃길까
나의 정적을 깨트리는 여자들이
꽤 씩하다 괜히...



어느새 또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그 누가 그랬던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보다. 우리 노보살님들에 비하면 아직 이팔청춘인 나이겠지만, 어찌 됐거나 나 또한 살 수 있는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나이가 되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하루들이 모여 한 해를 만들고 그런 한 해를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다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왜인지 부질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얼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기를 쓰며 살아왔고, 또 왜 그리 살고 있나 싶으면서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것이다.

이 나이쯤 되면 사실 웬만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 무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언제부터였을까? 더이상 새해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 해가 끝나가는 것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그다지 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게. 바뀐 나의 외면뿐만 아니라 이런 내면의 변화에서도 나는 내가 나이들었음을 새삼 느낀다.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은 없으리라. 그럼에도 굳이 한 가지 좋은 점을 꼽자면,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을 토대로 나의 여생에 대한 방향성을 쉬이 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지금도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젊었을 때의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명확했고 그에 대한 표현도 거침없었다. 그랬기에 때로는 누군가와 쉽게 적이 되기도 했고,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하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나에게 이런저런 불이익이 생기기도 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하나, 또 사실 어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옳은 일이라 생각되었던 일이 상대에게는 옳지 못한 일이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옳지 못하다 생각하였으나 상대에게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의 판단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지금은 그저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모습을 가졌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한다.

어찌다 보니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 한 해를 약간 무거운 감정으로 맞이하게끔 글을 시작한 것 같다. 자 그럼 분위기를 전환하여, 그대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희망, 계획으로 2022년을 시작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제발 코로나가 사라져 마스크를 벗고 속 시원히 역동적인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는 이도 있을 테고 또 혹은 아직 자녀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혼이라면 그와 관련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있을 것이다. 다들 아마 이런저런 저마다의 희망을 품고 한 해를 맞이하고 있으리라.

이러한 그대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마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노력해서 변하지 않는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라면,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또 생각을 달리하여 보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즉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의 상사나 업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퇴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곳에 여전히 남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사한 이와 달리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어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그래, 또다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밝았다. 지난해 저마다 여러 일들이 있었을테고 이는 분명 올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해 연초, 저마다 그 해에 이루고 싶은 바를 계획하는 것은 좋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가에 있다. 긍정적인 시각과 사고,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매일이 새로운 새해 첫날과 같을 것이며 늘 평온하고 즐거운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그대와 이 글을 쓰는 나,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6가지 마음 습관

묘원화 전문
벽통사



나만 아끼는 마음 습관(4)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김없이 새해불공은 진행됩니다. 새해불공에는 전국의 스승님과 교도 모두가 새해를 어떻게 보낼지 서원을 세워 용맹 정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서원 모두에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고통을 원하지 않으며 행복해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는 것에서 옵니다. 자비심이 얼마나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이기심이 얼마나 행복을 밀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록 우리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행복할 것 같지만 지난 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일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어떤 서원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겠습니까?

첫째, 간단하게 삽니다.

살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삶이 복잡합니다. 내 문제도 복잡한데 배우자와 자녀, 친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때에는 줄이는 수행, 버리는 수행이 좋습니다. 소유물을 줄이고, 생각도 적게 하고, 간섭도 줄이고, 모임도 없앱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임이 사라진 경험은 좋은 수행 체험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모임이 사라진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법정 스님의 삶을 배우고, 법공 종령님의 월초 육덜계(월초 불공 시에는 평소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보고, 덜 말하고, 덜 다니고, 덜 소비하기)를 매일 수행해 봅시다.

둘째, 정송은 꼭 필요합니다.

염송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신에게 위로가 됩니다. 매일 혼자만의 공간에서 고요히 염송을 하며 홀로 머물러 보세요. 오히려 외로움이 사라지고 충만감으로 가득 찬 자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셋째, 자연과 더불어 삽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름다운 산과 강이 많습니다. 도심지에도 공원과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에 화분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니다. 차를 타고 가며 보기만 해도, 혼자라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자연을 찾아 더불어 지내세요. 짧은 순간이라도 자연에 마음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지구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선물이며 행복입니다.

그밖에 많이 웃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잔소리를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자고, 다른 이의 허물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들 중에 마음에 들거나 올해 실천해 보고 싶은 서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임인년 한해도 쉽 없이 바르게 정진 수행하셔서 일체 중생 모두가 해탈하여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권력과 망상

이승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권역별거점번역연구소 책임연구원

團土作糕戲小兒 단토작고희소아
爭來爭去髮相持 쟁래쟁거발상지
宦塗傾奪曾何異 환도경탈증하이
捨命捐身不自知 사명연신부자지

흙덩이 뭉쳐 떡 만들어 소꿉 노는 아이들
앞 다투어 몰려다니며 머리채를 잡아 뜯네
벼슬판 난장 다툼 이와 다를 게 무에랴
명줄 닳고 몸 망쳐도 알지를 못하누나

- 안정복(安鼎福, 1712~1791),
『순암집(順菴集)』 권1 「감회가 있어[有感]」 제1수

권력은 무엇이며 권력은 왜 가지는가.

토마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그 유명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을

제창한 바 있다. 곧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개인의 만족스러운 생활과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고, 개별 인간 모두가 동등하게 소유한 이 본능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투쟁을 유발하여 나의 온전한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모사꾼과 약탈자와 침략자가 되며 폭력은 필수불가결의 수단이 되어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에 대해 폭력으로 투쟁하는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회와 국가의 존재, 그리고 그 사회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존재가 필요하며, 이 존재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위임한다는 사회계약론의 토대가 여기에서 마련되었다. 물론 홉스의 사상을 깊이 파지고 들어가면 억압적 통제와 같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서 출발하여 이후 많은 사상가들을 거쳐 법과 국가에 의한 민주적 통치라는 현대 사회의 체제가 발전 확립되었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통제와 조정이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합의와 희생으로 도출되고 위임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경건하다. 권력의 목적은 다수 대중의 이익과 안전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위임된 것이며, 공동체의 대표자로 선정되어 이 경건한 권력을 감히 행사할 때에는 그야말로 살이 떨리고 등줄기에 땀이 나는 전율戰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과실果實은 공동체 구성원과의 계약에 따라 반드시 공동체로 귀속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과실을 위임

된 권력의 대표자가 가로챌다면 이는 계약의 위반이며 주벌(誅伐)의 대상이다.

그러나 권력의 모순은, 이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진 인간이 이익을 조정하고 환원하는 대표자가 되었다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유사 이래로 권력의 속성이 추악하다고 인식된 데에는 바로 권력의 대표자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망상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서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해 동서양의 수많은 사상들은 군주의 덕성을 함양하거나 촘촘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방식을 다양하게 고안해왔다. 그러나 임무를 망각한 인간의 본능은 쉽사리 제어되지 못했다. 자기 것이 아닌 허깨비 같은 권력의 과실을 차지하고자 추악한 아귀다툼을 벌이다가 명줄을 재촉하고 패가망신하는 일은 도무지 사라질 줄을 모른다.

이 시를 지은 안정복은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학통을 이어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용적 학문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사학(史學) 방면에서 출중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그의 스승인 성호와 마찬가지로 당대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南人)으로 만년에 가서야 만녕전 참봉(萬寧殿參奉), 의영고 봉사(義盈庫奉事),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목천 현감(木川縣監) 등의 미관말직을 잠시 맡았을 뿐 자신의 뜻과 사상을 실제 정치에 적용하여 펼쳐보지 못하고서 투철하고 순수한 학자의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마쳤다. 경

세치용을 중시하고 실제적인 학문을 하던 안정복이 볼 때 벼슬판의 권력 다툼이란 것은 그저 흙으로 만든 가짜 떡을 가지고 다투는 아이들의 난장판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속에 무슨 인민의 복지가 있으며 사회의 안녕이 있었는가. 설혹 입으로 그것을 떠든다고 해도 그 안에 무슨 실질이 있었겠는가. 제 것이 아닌 허깨비 같은 것을 두고 다투며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멈추지 않는 정치판을 냉소하면서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학문을 닦고 후대에 남길 저술을 써 내려갔을 따름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나쁜 것이겠는가. 그것은 사회 체제가 만들어 낸 불가피한 권한이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계약의 산물이다. 권력의 본질을 투철히 이해하고 그 행사에 전율한다면 흙떡을 다투다 패가망신하는 일이 없을 터인데,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 앞에 투철하며 전율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두려운 일 앞에 그저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고 선부른 공명심으로 발끈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짓이 언제나 멈춰지려는가. 혹 멈출 수 없거든 주벌이 무섭지 않겠는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일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립·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사람 중심의 사회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 <숫대평론> 발행인
 컬럼집 <배제와 포용> 저자

분노, 불신, 배제, 차별...이런 단어들보다 더 끔찍한 것은 혐오이다. 혐오는 종^種이 다른, 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 인간과 귀신 이렇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혐오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일반인이 장애인을 혐오하고, 백인이 흑인을 혐오하고...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정치 혐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두명만 모여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팽팽히 대립하며 서로의 이념을 혐오한다.

잘게 얘기해서 이념이지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감정에 가깝다. 감정은 개인적이고 가변성이 커서 불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감정만큼 강력한 힘도 없다. 감정은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다. 그런데 감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감정은 철학으로 발전하는데 철학은 부드러운 학문으로 인간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



서 철학은 사랑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선한 의지와 희망이 인류에 대한 존중과 결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희망을 향하고 있다. 희망이 없다면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우리 모두 희망으로 만든 꿈이 있기에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희망을 만드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두려움을 없애주면 된다.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이 혐오의 감정을 갖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두려움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인데 두려움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배제하고 급기야 혐오심까지 만들어 자기 방어를 하면서 자기가 최고라는 나르시시즘에 빠진다고 한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며 지속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공격이 자기 자신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 희망은 밖으로 향하고 두려움은 안으로 움츠러든다. 두려움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쁜 결과에 집중하고 희망은 좋은 결과에 집중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

어야 한다. 정치인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존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 중심 사회의 철학은 불교에 잘 나타난다. 불교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즉 우주와 내가 하나이다. 그리고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어서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 사상이야말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존중하는 체계이기에 불안이 사라지고 희망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부르짖었던 ‘사람이 먼저다’는 수직 관계이지만 사람 중심은 원융무애(圓融無礙) 즉 모든 존재가 서로 방해됨이 없이 일체가 되어 융합한다는 불교의 이상적인 경지이다. 모든 사람이 타인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만 갖는다면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등으로 인한 혐오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붕괴를 초래한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면 누구와 살 것인가?

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기에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사회권(social rights)을 누리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새해는 희망이 가득한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한다.

새해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인간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기 보다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기약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전 철이 없던 시절에는 과거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철이 들고 난 후 부터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보다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 새해가 되면 무언가 새

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희망과 행운이 생길 것만 같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거부터 해왔던 습성이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부지기수다.

인간은 기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과거 전생부터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였던 것을 소 되새김질하듯 반복해서 행한다.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행했던 모든 것은 아뢰야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아뢰야식에 저장되어진 업은 현재의 나의 행위에 관여한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봐왔던 것들과 현재 보고 있는 것을 비교분석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그 새로 만들어 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처한 상황만을 판단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해왔던 말과 행동들 중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고 과거에 그 상황에서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비교분석해서 말하고 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논하기 전에 과거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 과거에 나는 어떻게 말해왔고, 행동해왔고, 생각해

왔는지 소 되새김질하듯 기억해내야 한다. 그래야 참회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할 수 있어야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다면 올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작년 한해를 먼저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윤동주의 시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을 들려주고 싶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 윤동주 -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 볼 이야기가 몇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도록
하루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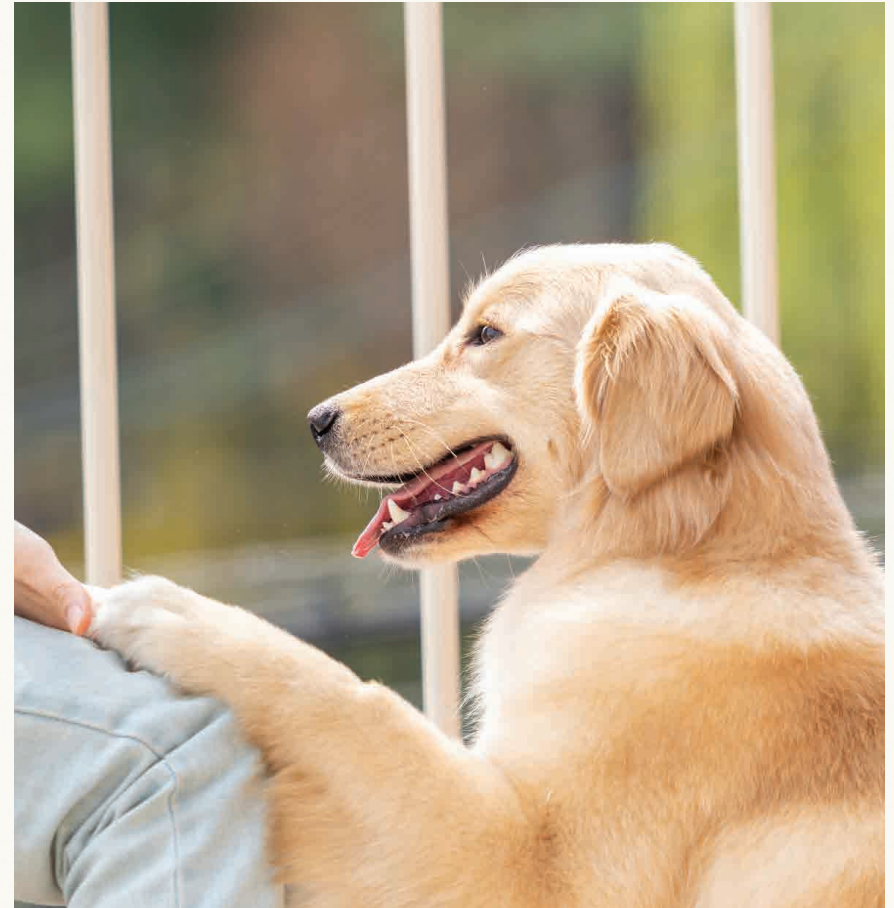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김봉래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새로운 삶 살겠다는 초심(初心)이 새로운 시각 열어”

새로운 희망으로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벽두에 심사가 편하지만 않다. 코로나19는 좀 진정되려나, 경제는 나아지려나, 대통령 선거로 대변되는 정치권의 변화는 어떠려나 하는 염려들 때문이다. 특별한 일 없이 무탈하기만 해도 좋겠다 싶다가도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열망과 몸부림이 보이는 것은 아직도 젊다는 뜻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가도 그것이 곧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으며 위안을 삼아 본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고 순간순간 새로운 순간이니 나도 세상도 변한다. 그러한 변화에 수순함은 변화를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바라보는 일만은 아니다. 바람직스러운 변화를 위해 그만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일도 포함된다. 그 시작은 무엇보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인 것 같다. 과연 나는 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한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을 거울로 삼아 비춰본다.



경전을 보다가 다른 인도철학과 불교의 차이, 즉 아(我)와 무아(無我) 사이의 구별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 중생이나 보살의 그 성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 중생이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한다는 가르침이다. 즉

무아이기 때문에 마음 씬뽀이를 어떻게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우바새계경〉 앞부분을 보자. “누군가 말하되 ‘모든 중생들에게 보살의 성품이 있다’고 하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성품이 있다면 곧 마땅히 선한 행위와 인연을 닦지 않고도 여섯 방향에 공양을 올리리라... 무량한 선한 행위와 인연을 쓰는 까닭으로 보리심을 내면 보살의 성품이라 한다... 만약 정해진 성품이 있다면 이미 성문이나 연각의 마음을 낸 이는 능히 보리심을 내지 못할 것이다.”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 적용해 본다면 불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에 집착함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해도 ‘아’에 집착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할 때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결론을 내면 안 된다.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아’에 집착함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간’이라 해도 옳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이든 독립적으로 항상하게 변치 않고 있다는 실체론적 생각은 불교적이지 못한 사고다. 모든 것이 독립적이지 않고 조건에 의해 잠시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불교의 연

기 무아적 사고다. 연기적 사고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든 부처님 같은 확고한 지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탐구하는 탐구자적 자세일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어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경계할 것은 새롭게 바라본 것에도 집착하여 머물면 이 또한 고착되어 또 하나의 ‘아’에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지식에 의해 시설된 법을 깨달아 자아에 대한 고집인 아집(我執)을 놓더라도 다시 그 마음에 집착하면 옳다는 데에 대한 집착인 법집(法執)이 되어 버린다. 아집을 벗어난 소승에서 한 발 나아가야 법집을 벗어난 대승의 발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늘 타성에 젖어 살기 일쑤다. 어제의 잣대로 오늘을 재려하니 맞지 않아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한다. 그래서 초심(初心=初發心)을 챙기는 자세가 요긴하다. 초심은 더 이상 기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마음이다. 새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어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이루고 오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만큼 순간순간 초심으로 살아야겠다.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라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다음카페 '목탁소리' 지도법사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 온 나이만큼의 세월 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습으로써 오늘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일은, 아니 조금 전의 일까지라도 모두 비워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으로써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나 자신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자신이 없다. 그건 정말이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을 보라. 이 세상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야생적이며 자연적인 것들에게서는 똑같은 것을 찾을 수 없다. 진리와 합일하여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서 똑같은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인간들만이 획일화되고 똑같은 것들을 다량으로 만들어 내고 키워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똑같은 것은 아니다. 겉모습이 똑같다고 그 내면도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일 뿐.

똑같이 교육받는다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서 키워졌다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을 수도 없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획일화된 모습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거

스르는 일일 뿐이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는가.

같은 꽃이라도 똑같은 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산에 가 나무들을 살펴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의 나무는 찾아볼 수 없다. 똑같은 소나무며 참나무일지라도 똑같은 산에서 똑같은 기후 조건 아래에서 자라더라도 똑같은 모습은 있지 않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전 인류의 시공을 통틀어 똑같은 모습과 삶,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어제의 하늘은 어제의 하늘일 뿐 오늘의 하늘은 전혀 다른 별개의 하늘일 뿐이다. 어제의 나무며 들꽃들과 오늘의 나무며 들꽃은 서로 같지 않다. 전혀 새로운 오늘이 있다.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전혀 새로운 찰나가 있을 뿐. 그것이 이 세상의 본래적 모습이다. 진리 본연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진리와 하나 되어 흐르고 진리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순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이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어제의 관념으로 오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제의 편견을 오늘까지 가져오지 말라. 어제의 선입견은 그저 어제의 것으로 놓아버려라.

세상을 보는 가장 밝은 시선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

는 것'. 즉,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에 있다. 정견이란 곧,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은 맑고 투명한 시선, 투명한 바라봄을 말한다. 즉, 어제의 관념으로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닌,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듯 전혀 새로운 텅 빈 시선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이미 지나간 어제는 어제로써 내버려 두라.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오늘이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온갖 선입견이며 편견들, 세상을 바라보는 온갖 걸러진 시선들을 놓아버리라. 투명한 시선을 가로막는 온갖 색안경들을 다 벗어던지라.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조차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배워온 것, 경험해 온 것, 스스로 깨달았던 것들까지 과거의 것들은 다 놓아버리고 완전히 치우치지 않은, 걸러지지 않은 새로운 시선으로 '지금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배울 때, 혹은 진리를 공부할 때나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과거에 배워왔고 익혀왔던 그것들을 가지고 듣고자 한다면 점점 더 진리와는 멀어져 가게 될 것이다.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참되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처럼 보아야 하고,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법문을 들을 때도 혹은 책을 읽을 때도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의 편견으로써 걸러

보며, 자신의 견해와 합당하는 것들만을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기에 똑같이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들었어도 사람들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뜻에 맞는 글귀나 말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는 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수없는 법문을 듣더라도 참되게 읽은 것도 들은 것도 아니며, 전혀 참과 가까워질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곳이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보이는 일체 모든 대상들은 내가 처음 보는 것들일 뿐이다. 눈이 내려도 항상 첫 눈이며, 사랑도 항상 첫 사랑일 뿐이고, 바람이 불더라도 항상 새로운 바람일 뿐이다.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가까운 숲길을 거닐어 보라. 늘 행하던 일이라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그 일을 시작해 보라. 어린 아이가 되어 숲길을 거닐어 보라. 처음 보는 듯 피어나는 봄꽃을 바라보라.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이, 마음에 욕심이나 번뇌도 없이,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다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 평소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라.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전혀 새로운 진리에 눈을 뜨게 된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때 매 순간은 기적과도 같은 진리의 순간이 될 것이다.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블로그-

카일라스의 순례

김규현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 소장



바깥쪽 산돌이 순례(2)

해동의 나그네의 목적 중에, 성산의 순례 말고도 또 다른 나만의 작업이 있었다. 바로 내가 그림을 도안하고, 파고, 찍은 따르축을 이곳에 거는 일종의 '설치미술작업'이었다. 그간 직접 오색 천에다가 찍은 수백 장의 목판화를 카일라스 산에 거는 행위였다. 현대 예술론으로 본다면 일종의 '행위예술'이지만 나는 이것을 원시예술의 재현행위라는 개념을 갖고 카일라스에 갈 때마다 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오색 깃발은 바람을 부른다. 그 깃발에 나의 소망을 담아 저쪽 너머의, 피안의 세계로 날려 보내고 싶은 것이다. 이미 내 뜻을 이해한 일행들의 도움으로 서둘러 수백 장의 깃발을 걸었다. 그러자 마자 역시 바람은 달려왔다. 그리고 뒤 따라 콩알만 한 우박까지 따라 왔다. 기념촬영 할 사이도 없이 마치 '굿 망친 선무당처럼' 두려움을 안고 일행을 뒤 쫓아 가면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다. 다시 한번 뒤 돌아보니 내 영혼이 담긴 깃발들은 세차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마치 그것들에 쏟았던 시간들을 쫓아가려는 듯이, 그렇게 세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길은 용단 같은 초원 속으로 북으로 뻗어 있었다. 온통 붉은색의 거대한 바위들이 양쪽에서 도열한 넓은 계곡 사이로 길

은 ‘신의 시냇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추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카일라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이 신성한 이름의 물은 산 아래의 호수에 모였다가 다시 분출하여 동서남북으로 흘러 4대강을 이룬다. 그 개울에 아름다운 외나무다리가 걸쳐 있는데 역시 오색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해동에서 온 순례자여!”

불·보살의 나라의 첫 다리를 건너자 앞의 산 중턱에 제비집 같이 붙어있는 넨리곤빠가 올려다 보인다. 순례로의 첫 사원으로 까귀파 소속이라 한다. 그 길가에 연꽃 동굴과 코끼리 동굴이 나타난다. 이곳은 음유시인이며 철저한 수행자였던 밀라레빠의 체취가 묻어 있는 곳이다. 썰기풀 같은 거친 음식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철저한 고행으로 일관하는 참회의 세월을 살면서 판트라 수행을 하면서 때때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으리라. 깨달음의 노래를 목 놓아 불렀으리라.

넨리곤빠 아래서 우리는 야크똥을 연료로 차를 끓여 간단한 점심을 때우고 다시 일단의 원주민들에 섞여 길을 재촉하였다. 신의 냇물 라추를 따라 한참을 오르니 오른쪽으로 거대한 붉은 바위가 하늘 가득 솟아 있었다. 힌두교 교리체계에서

의 파괴의 신 쉬바를 상징하는 삼지창 또는 금강저 모양을 한 마하칼라(MahaKala) 봉우리이다. 쉬바교도는 이마에 흰 물감으로 삼색선 또는 삼지창문양을 그리는데 이는 이 봉우리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힌두교도에게는 쉬바신은 죽음의 두려움 그 자체이면서 또한 창조의 열쇠를 가진 이중적인 신격으로 인식되어 있다. 쉬바는 최고의 신으로, 출가수행자의 수호신으로, 때로는 순례자의 길벗으로, 요가행자(Yoga)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난다. 또 그는 사원 안에서는 링가(Linga, 男根)형태로 안치되어 힌두교도들의 숭배를 받는데, 이는 창조의 원리와 다산의 의미이기도 하다. 쉬바교, 즉 쉬비즘(Shivism)에서는 카일라스는 남근을 상징한다. 산의 모양이 그렇기에 링가가 숭배의 대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곳에 직접 와서 쉬바신을 참배할 수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 링가를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인도에는 유명한 석굴군이 많은데, 그중 엘로라(Ellora)의 카일라스(Kailasantha)사원이 우리의 주제와 관련이 깊다. 이 사원은 실제 카일라스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져 쉬바신을 위해 헌정되었다고 한다. 물론 쉬바신의 상징인 ‘링가와 요니’를 함께 배치하였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원래 이 산의 주인은 인드라신(Indra)이었다. 브라흐만교가 힌두교에게 그 자리를 내주자

인드라는 불교의 판테온으로 들어와 제석천으로 변화하였고, 힌두교에서는 그 자리는 쉬바신이 차지하게 되었다. 쉬바신화에 의하면 그의 신전은 바로 이 카일라스 산의 수정 봉우리 위이다. 그는 때때로 산을 내려와 조용한 산기슭이나 마나사로바 호숫가에 앉아 조용히 요가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때로는 그의 부인들인, 우마 또는 파르바티와 나무그늘에서 쉬거나 부인이 호수에서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장발의 요가수행자로서의 용모 때문에 그는 티베트의 실존 인물인 밀라레빠와 동일시되어 많은 설화에서 혼동되어 묘사되기도 한다.

이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봉우리를 두고 4대종교는 각기 입장의 차이를 드러낸다. 쉬비즘에서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불교에서는 16나한봉으로 인격화되었고 뵤보에서는 이산을 지키는 신장으로 각기 그 이름과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계곡을 급하게 얼마쯤 오르니 계곡은 좀 더 좁아진다. 왼쪽으로는 따라, 아미타바, 비자야 봉 등이 차례로 솟아 있고 고개를 들어 오른편을 치켜다 보면 그 유명한 빠드마섬바와의 토르마 봉(Torma峰)이 하늘을 반쯤 가리고 있다.

문득 붉고 거대한 바위 뒤로 순간적으로 눈부신 광선이 두 눈을 찌르는 듯 내리 쏘았다. 아! 카일라스였다. 안개 속에서 문득 수정 봉우리가 하늘로 솟아오르듯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다. 일행 모두 현기증이 일어나는 듯 땅에 주저앉아 이 숨 막히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지점은 바로 이 성스러운 산의 바로 겨드랑이에 해당되는 곳이어서 바로 눈앞에 2천m나 되는 단일 봉우리가 솟아 있는 형국이기에 허리와 고개를 완전히 젖히지 않으면 정상 부분을 바라다보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목에 쥐가 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그 장엄한 광경에 빠져들어 갔다. 이윽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병풍이 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개천(開天)이라 부를 만 한 광경이었다. 그것은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신성이 화현하는 그런 세계였다.

건포도 먹기 명상을 해봅시다

신진옥 법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마음 챙김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시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당면한 미래의 목표도 제쳐 놓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닌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의 속도를 늦추고 감각적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포도의 냄새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질감 또한 낯설거나 진기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건포도 한 알의 맛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건포도를 한 번에 20여 개 입안에 털어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이렇듯 마음 챙김은 음식을 먹는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함께해 봅시다. 건포도 한 알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 놓습니다. 온 신경을 건포도에 집중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관찰해봅시다. 아주 조심스럽게 온 마음을 기울여 건포도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가장 반짝이는 부분과 빛을 반사하는 부분, 움푹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 접히고 주름진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색깔, 모양, 크기 등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건포도를 잡고 질감을 탐색해 봅니다. 눈을

잡고, 손가락으로 건포도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질감을 최대한 느껴 봅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부드러움, 딱딱함, 탄력성, 끈적거림 등 손에 닿는 느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차갑거나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건포도 한 알을 손에 들고 집중하며 천천히 상하로 움직여보면 어느 정도 무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 밑으로 건포도를 가져가 숨을 들이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봅니다. 달콤하거나, 톡 쏘거나, 매운 냄새가 나는지? 어떤 냄새든 그대로 온전히 알아차립니다. 만약 아무 냄새가 없다면 냄새가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냄새를 들이마실 때 입이나 뺨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조금은 엉뚱해 보이겠지만 건포도를 귀에 대고 문질러보면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건포도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면서 손과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혀가 건포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도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포도를 입안에 살짝 넣은 뒤 씹지 말고 혀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적어도 30초간 건포도의 느낌에 온 신경을 집중해 봅니다. 혀 위에 놓인 건포도가 촉촉한지 건조한지 열린 알아차림으로 느껴 봅니다.

씹을 준비가 되었으면 건포도가 입안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의식적으로 한 번 깨물면서 어떤 감각이 느껴

지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간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세세히 관찰합니다. 건포도가 내는 어떤 맛이라도 있는 그대로 느껴 봅니다. 이빨로 건포도를 씹을 때의 질감도 느껴 봅니다. 아직 삼키지는 말고 천천히 여러 차례 건포도를 천천히 씹습니다. 계속 씹다 보면 삼키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삼키기 전에 그 충동을 온전한 알아차림으로 경험해 봅니다. 건포도를 삼키기 위해 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건포도를 삼키면서, 느껴지는 감각을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다 삼킨 후에는 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찰합니다. 가능하다면 삼킨 건포도가 위장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감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포도를 다 먹은 다음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다시 느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건포도 한 알을 먹는 매우 간단한 행위라도 그것에 주의를 의도적으로 집중하면 전혀 다른 경험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든 기쁨이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인데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미래나 과거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 나무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녹차의 원산지는 중국 쓰촨성과 티베트 산악지대 일대이며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는 삼국시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수입해 상류층에서 주로 소비하다가 828년 신라 흥덕왕 시대에 당나라부터 씨앗을 선물 받아서 최초로 지리산 일대에 차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성일대나 광주와 전주, 하동군을 비롯해 지리산 일대에는 야생으로 자라는 차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동 쌍계사 절 주변에는 몇 백년을 관리해 온 오랜 차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차 나무, 다년생의 상록수이며 꽃은 10월~11월에 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학자들에 연구되어져 지금은 차나무를 중국종인 소엽종과 대엽종으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소엽종은 잎이 작고 추위에 잘 견디고 떫은맛을 내는 폴리페놀 함량이 낮으며 단맛과 감칠맛이 풍부한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녹차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반면 대엽종은 잎이 크고 떫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감칠맛이 풍부한 아미노산의 함량이 낮아 홍차

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은 중국 소엽종 차나무입니다. 또한, 차나무는 유성생식(암수와 수술이 만나 씨앗이 만들어짐) 또는 무성생식(꼭짓이)으로 번식하는데 유성생식은 차나무의 변이가 일어나서 좋은 차나무를 계속 이어갈 확률이 낮으며 무성생식은 변이가 적어 품종 유지에 적합하지만 환경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특성을 이용해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교배를 통해 특정한 차를 만드는데 적합한 품종의 차나무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녹차는 찻잎을 증기로 찌거나 솥에 띄어 발효되지 않도록 만든 불발효차가 대부분입니다. 불발효차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주요 생산국으로 중국에서는 덩음차, 일본에서는 증제차가 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덩음차가 대부분이고 증제차는 전체 생산량의 25~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기로 찌 다음 덩음차와 같이 말아진 형태로 만든 옥로차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증제차의 깔끔한 맛과 덩음차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형태의 녹차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찻잎에는 다른 식물에 없는 테아닌과 카테킨 성분을 함유하



고 있는데 테아닌은 아미노산의 하나로 긴장을 완화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이고 카테킨은 쓴맛과 떫은맛을 내는 항산화, 항암, 항균 등의 효능이 있어 주로 카테킨 함량이 높은 찻잎을 발효차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차를 따는 시기를 보면 아미노산 함량은 첫물차(5월까지 수확)가 두물차(6~7월 수확)와 세물차(8월 수확), 네물차(9월 이후 수확)보다 2.2~4.2배 정도 높은 반면, 카테킨 함량은 두물

차, 세물차, 네물차 보다 첫물차가 1.9~2.2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소하겠지만 차나무의 찻잎의 모양을 보면 새로 나온 보족한 싹이 말려있어 창과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이를 “창”이라 부르고, 창보다 먼저 나와 잎이 다 퍼지지 않고 조금 오그라들어 있는 깃발과 얇은 어린잎을 “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차나무(1심)에서 잎이 나는 순서에 따라 1엽에서 5엽으로 나뉘고 싹이 난 뒤 5엽이 되기까지, 즉 잎이 5개가 되기까지는 32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찻잎을 수확할 때는 나무 상태도 고려해서 힘이 약한 나무는 첫물차만, 겨울철 저온 피해를 입은 차나무는 봄철 가지치기를 해 세물차와 네물차는 수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단순히 추운 겨울 몸을 녹여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아주 오래전 자연에서 자랐지만, 수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좋은 차나무 한 그루를 키웠고, 그 후에도 끝없는 노력과 긴 시간 동안 좋은 맛과 향, 성분을 가진 차나무를 완성했기에 이 한잔을 지금 내가 마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壬寅年

해룡 한태평

불자, 동양철학자
네이버 블로그 '해룡' 운영중
(blog.naver.com/k-htp72)



벌써 2022년입니다. 새벽에 깨서 고요하게 명상을 해보니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으니 2022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주는 가능성의 학문이고 의지 개척의 영역입니다. 가령 사주를 봐서 2022년이 흉하다는 말을 듣고 대비해서 2022년을 슬기롭게 보냈다면 흉한 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사주만 보면 2022년에 망할 사람이 실제로는 오히려 성공을 거둔다면 그건 사주명리학이 틀린 걸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사주명리학 덕분에 운명을 개척한 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임인년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슬기롭게 의지를 가지고 운명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인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임인 간지¹⁾

壬	천간 '임'은 오행에서는 수(水)에 속하며, 음양에서는 양(陽)에 해당한다.
寅	지지 '인'은 호랑이를 상징한다. 오행은 목(木)에 속하며, 양(陽)에 해당한다.

임인(壬寅)은 검은 호랑이로 임수(壬水)와 인목(寅木)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천간의 수 기운이 지지의 목 기운에 힘을 붙여넣는 형국으로 강한 진취적인 기운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천지가 생동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간지입니다. 임수의 입장에서 병지요 식신자리인지라 수 기운이 빠지고 목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역마의 기운이 강하고 강한 개척이 일어나는 시기로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작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2. 임인년 평가

임인년은 강한 봄 기운으로 시작의 기운입니다. 진취적인 기운이며 그동안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봄바람이 부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드디어 느껴지기 시작하며 대개혁과 개척정신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전까지가 수동적인 세상이었다면 임인년부터는 드디어 다시 시작하는 세상으로 개척정신과 관련이 깊은 사업, 진출,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 그도 그런 기운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임수에게 인목은

1) 간지(干支)는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조합한 것으로, 육십갑자(六十甲子)라고도 한다.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십간(十干)이라고 하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십이지라 하며 각기 다른 음양오행의 성질을 갖는다. 십간은 하늘에 자리한다고 하여 천간이라 하고, 십이지는 땅에 자리한다고 하여 지지라 한다.

식신이니 베풀며 또한 기가 순행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다만 임인년이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목^{寅木} 기운 때문에 임인년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개척이 강해지면 혁명, 폭력, 강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바꾸어 말하자면 기존질서의 붕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하가 다투고 갈등이 생기며 사람들이 급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취적이고 강하고 개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그 기운이 강해지면 폭력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니 변혁의 해이며 사주에 따라서 반드시 정밀한 감정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싹트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 임인년과 사주명리

일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인년은 임수에게 병에 해당하니 기세가 뻗기는 형국입니다. 강한 설기가 이루어지는 해이므로 많이 힘이 빠지는 해입니다. 일복이 많아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갑목에게는 천군만마가 들어오는 형국으로 강한 기운이 들어와 보좌합니다. 이는 병화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강해집니다. 정화에게 임인년은 임수와 유정한 사이이니 참 아름답고 훈훈한 시기로 자리

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경금은 절지로 힘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룬 일이 결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금은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계수에게는 상당히 경쟁이 많아지는 시기로 경쟁에서 승리해서 재물이든 남자든 쟁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용신으로 보자면, 목화 용신인 사람들이 힘을 얻는 시기이며 임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수 기운이 약하여 수를 용신으로 쓰는 분들은 다소 아쉬운 한 해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임인년은 진취, 개척, 확장, 개혁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사람에 따라서는 과욕, 강압, 혁명의 기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한 해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이니 그 기운이 꼭 모두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나쁜 것도 아니니 세상을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가져야 운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봄바람은 삼한사온을 불고오니 봄기운이 태동하는 시작의 기운이므로 아직은 쌀쌀하고 훈풍이 완전한 시기는 아니니 마냥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대비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두쇠의 죽음

범일 정사

수인사 주교



한 구두쇠 양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하고 고리대금을 한끝에 엄청납 돈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한 일년쯤 안락한 생활을 즐기며 지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그가 돈 모으기를 중단하자, 그의 목숨을 가져갈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다.

구두쇠 양반은 온갖 생각을 다 짜내어 저승사자를 설득하려 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저승사자는 완강했다.

구두쇠가 말했다.

“더도 말고 딱 사흘만 여유를 주세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 중 삼분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들은 체도 않고 그의 목숨을 가져가야겠다고며 끌어당겼다.

구두쇠가 다시 말하였다.

“아니, 잠깐만 그럼 딱 이틀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 재산의 삼분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승사자는 역시 단호했다. ‘삼백만 냥이나 되는 모든 재산을 몽땅 내놓는다’ 해도 단 하루의 여유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였다.

구두쇠는 마지막으로 간청했다.

“정 그러시다면 제발 글 한 줄 쓸 시간만이라도 좀 주세요!” 그제야 저승사자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구두쇠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얼른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큼지막하게 이렇게 썼다.

“세상 사람들아,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삼백만 냥이나 갖고 있지만 단 한 시간도 내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

내 인생도 구두쇠처럼 재산 모으기만 하다 끝날 수 있다. 매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자.

호랑이콩

김조은
수인사 교도
요리연구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 2022년 임인년을 맞은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지요?

호랑이해를 맞아 코로나라는 불청객을 용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호랑이콩에 대해 알아보고 요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콩은 강낭콩 종류의 일종으로 무늬가 있어 호랑이콩이라고 불리우고 식감 또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호랑이를 닮았다고 호랑이콩이라고 불리는데요. 익으면 꼬투리 열매와 콩알이 모두 호랑이 무늬처럼 보이기 때문에 호랑이콩이라고 부릅니다. 익은 호랑이콩의 꼬투리열매와 콩알의 무늬가 같습니다. 꼬투리열매는 처음에 초록색이었다가 나중에 커지면서 점차 연두색이 되고, 완전히 익으면 흰색 바탕에 빨간색, 자주색 무늬가 있고, 꼬투리열매의 벌어지는 부분이 주황색을 띵니다. 이렇게 익은 호랑이콩의 꼬투리열매 안의 콩알과 꼬투리는 흰색 바탕에 보라색 무늬가 있고, 몇 주 동안 말리면 연한 갈색 바탕에 자주색 무늬가 있습니다.

호랑이콩 꽃은 벌이나 나비가 없어도 결식된다고 합니다.

호랑이콩에는 일반적으로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인삼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인 사포닌과 단백질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근육의 생성에 도움을 주어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의 사포닌이 관절염증도 막아준다고 하네요.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연골생성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관절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건강, 간건강, 갱년기여성건강에 주로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호랑이콩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권장량 200g 이하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과다섭취시 소화장애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랑이콩은 이처럼 많은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소량으로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인원수에 맞춰 일인당 200g의 양으로 소분하여 지퍼백에 담고 냉동보관하시면 됩니다.

호랑이콩의 어원, 효능, 보관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요리를 해볼까요?

고구마호랑이콩영양밥

재료 | 햅쌀 1컵, 보리쌀·수수·호랑이콩1/2컵씩, 고구마 3개, 다시마 우린 물 2.1/3컵

만들기

- ① 쌀과 보리쌀은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 ② 수수는 빨간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 ③ 고구마는 껍질채 씻어 물기를 닦고 사방 2cm 크기로 썬다. 호랑이 콩은 씻어 물기를 뺀다.
- ④ 냄비에 쌀과 수수, 보리쌀, 호랑이콩을 안치고 다시마 우린 물을 부어 밥을 짓는다.
- ⑤ 밥물이 찾아들면 고구마를 올리고 9분 정도 충분히 뜸을 들인다.

Tip. 호랑이콩영양밥은 물 대신 양파껍질 끓인 물로 넣어서 밥을 지으면 효과가 배가된다고 해요. 양파껍질에는 연골을 둘러싼 활액의 구성 성분인 황과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퀘르세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연골 손상을 막아주는 호랑이콩의 아연, 철분을 활성화시켜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호랑이콩은 삶았을 때 단백질 함량이 증가해서 무릎 관절의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고, 연골 손상 방지에 도움을 주는 이소플라본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 끓여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위의 호랑이콩영양밥에 비벼먹을 양념장을 만들어볼까요?

간장양념장

재료 | 달래 1단, 매실액 50ml,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0.5큰술, 간장 100ml

다진마늘 1큰술, 깨 1큰술

만들기

- ① 달래는 흐르는 물에 씻어 손질 후 잘게 다져준다.
- ② 달래, 다진마늘, 고춧가루, 깨를 넣고 간장 100ml 매실청 50ml 참기름을 넣어준다.



진언眞言이란?

위드다르마 편집실

진언眞言은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mantra)’라고 하는데, ‘참된 말씀’이란 뜻이다. 그 참된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비밀스러운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진언이다. 그래서 『대일경』에서는 진언을 ‘비밀어秘密語’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진언이란 부처님의 참된 경지를 비밀스런 말로써 나타낸 것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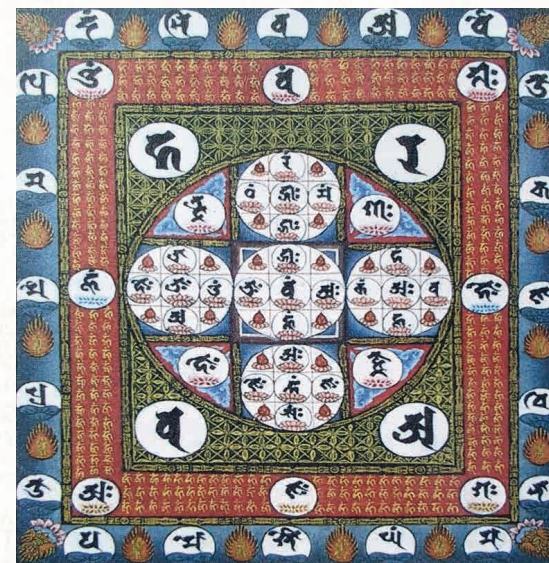
ॐ ॐ ॐ ॐ ॐ ॐ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mantra)인데, 만트라 신앙은 불교 이전에도 성행하였다. 불교뿐만 아니라 바라문교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만트라가 불교에 수용되면서 교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성스럽고 진실한 말로써 부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이와 함께 다라니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만트라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수행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진언 다라니가 소원성취와 재난소멸

뿐만 아니라 깨달음, 성불을 위한 중요한 수행법이 되었다.

다라니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일컫는 말이다. 다라니는 ‘가르침을 모두 기억한다’는 뜻으로 ‘총지總持’ ‘억지憶持’라고 번역한다. 총지總持는 ‘모든 것을 다 지닌다’는 뜻이고, 억지憶持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지닌다’는 뜻이다. 지녀야 할 대상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이고 이를 외우는 것을 진언염송이라 한다.



진언으로 그려진 만다라, 이를 법만다라(法曼荼羅)라고 한다

이 진언을 외우기도 하고 그림으로 나타내어 관상觀想을 하기

도 하는데 이 진언의 그림을 ‘진언종자만다라^{眞言種子曼荼羅}’라고 한다. 이 종자만다라가 사만다라^{四曼荼羅} 가운데 법만다라에 해당한다.

만다라는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네 가지 만다라가 있다. 이를 사만다라^{四曼荼羅}라고 한다. 사만다라는 부처님의 형상을 그린 것을 대만다라^{大曼荼羅}, 진언으로 그린 것을 법만다라^{法曼荼羅}, 모양을 나타낸 것을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 중생의 삼밀^{三密}을 가리켜서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라 한다.

진언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으로 외우는 것이다. 진언을 외움으로써 재난 소멸과 소원 성취를 이루고, 구경에는 즉신성불을 이룬다. 진언을 외우고 진언을 생각하는 수행을 통하여 부처와 하나가 된다.

진언은 바로 부처님의 참되고 진실된 말로서, 중생이 이를 외움으로써 불신^{佛身}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수행방편이다.

발체: 『육자의계 염송』 법경 지음(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불화는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불탑이나 불상, 불경 등과 함께 불교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사찰)에 그려진 그림 모두를 불교회화^{佛敎繪畵}라 하고 줄여서 불화라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좁은 의미의 불화는 절의 법당 등에 모셔 놓고 예배하기 위한 그림을 말하고, 둘째, 넓은 의미의 불화는 불교를 알리기 위한 갖가지 그림과 전각을 장엄하기 위한 단청과 벽화를 그려 종교적 신앙심을 자아내게 하는 모든 그림을 말합니다.

불화는 기원전 2~3세기 무렵부터 조성되었으리라 보며 율장¹⁾인 <유부비나야 잡사> 권 17에 보면 석가모니부처님 시절 급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그림으로 장식하고 싶어하자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일러주셨습니다.

‘문 양쪽에는 몽둥이를 든 야차²⁾를 그리고 그 옆으로 한 면에

1) 율장: 경·율·론 삼장 중 하나로 계율을 기록해 놓은 경전

2) 야차: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었으나 후에 불법을 수호하는 무리가 됨

는 큰 신통변화도를 그리고... 처마 밑에는 본생의 일을, 불전 문 옆에는 꽃다발을 든 여자를 그린다.’ 이와 같이 기원정사를 장엄하게 장식하는데 비천상 및 진귀한 새와 동물과 식물등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세기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불화도 전해졌으리라 추정 됩니다. 잘 아는 솔거의 황룡사 벽화는 진짜인 줄 알고 새들이 날아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140여점의 고려시대 불화가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 스스로 만법의 진리임을 깨달아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어 참된 진리의 삶을 살고자하는 선화와 묵묵한 소의 과묵함과 심 없는 정진력으로 불법에 이르는 수행자의 모습을 비유한 심우도(심우도)가 있습니다.

한편, 만다라는 총지종의 수행 방법과 같이 밀교적 수행에 있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내면 세계와 부처님의 법신인 진실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수행자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조성된 그림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과 용도로 조성된 수많은 불화는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선^善만을 추구하는 예술품이 아니라 불교적인 이념을 그리는 성스러운 예술

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불화를 그려 절의 이곳저곳에 장엄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 불화를 통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발해: 위드다르마 4호 윤승호 '불교미술 이야기'



총지사에 봉안된 태장계 만다라



총지사에 봉안된 금강계 만다라

수습나(suṣumṇā)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다. 소우주라는 관점에 따라 인체를 통해 두 가지 양극의 힘이 흐른다. 태양과 같은(sūrya-svarūpa) 힘과 달과 같은(candra-svarūpa) 힘이 그것이다.

태양 에너지는 낮의 여러 힘, 즉 의식적인 인지·객관적 지식·구별·지적 식별을 향한 원심적인 힘을 나타낸다. 달의 에너지는 잠재의식적 정신이라는 어둠 속에서 일하는 밤의 힘을 상징한다.

이 두 힘은 정신적 에너지로서 두 개의 주경로 또는 통로, 즉 달적인 이다-나디(idā-nāḍī)와 태양적인 땡갈라-나디(piṅgalā-nāḍī)를 통해 인체를 관류하고 있다.

이다와 땡갈라는 두 개의 나선으로 나타나며 각각 좌우의 콧구멍(鼻孔)에서 발하여 수습나 나디(suṣumṇā-nāḍī)를 둘러싸고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수습나 나디는 척추 중심을 내부가 비어있는 통로처럼 있으며 척추 기저부에 있는 회음부에서 이다와 땡갈라가 만나고 있다.

신비한 세계 축인 성스러운 ‘수미산’에 비유되는 수습나는 태양과 달의 흐름 사이의 통합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상과 최하 중심의 여러 힘을 결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통합된 태양과 달의 에너지는 승화되어 중심에서 중심으로 그것들이 최상의 다원적 의식 단계인 ‘천변연화(天弁蓮花)’에 이를 때까지 높아진다.

수습나는 쿤달리니(kuṇḍalini)의 잠재적 창조력(현대 심리학자가 말하는 리비도[Libido])이 깨어나지 않는 한 그 하단에 닫혀 있다. 이 상태에서는 파리를 튼 뱀에 비유되는 쿤달리니는 수습나의 입구를 막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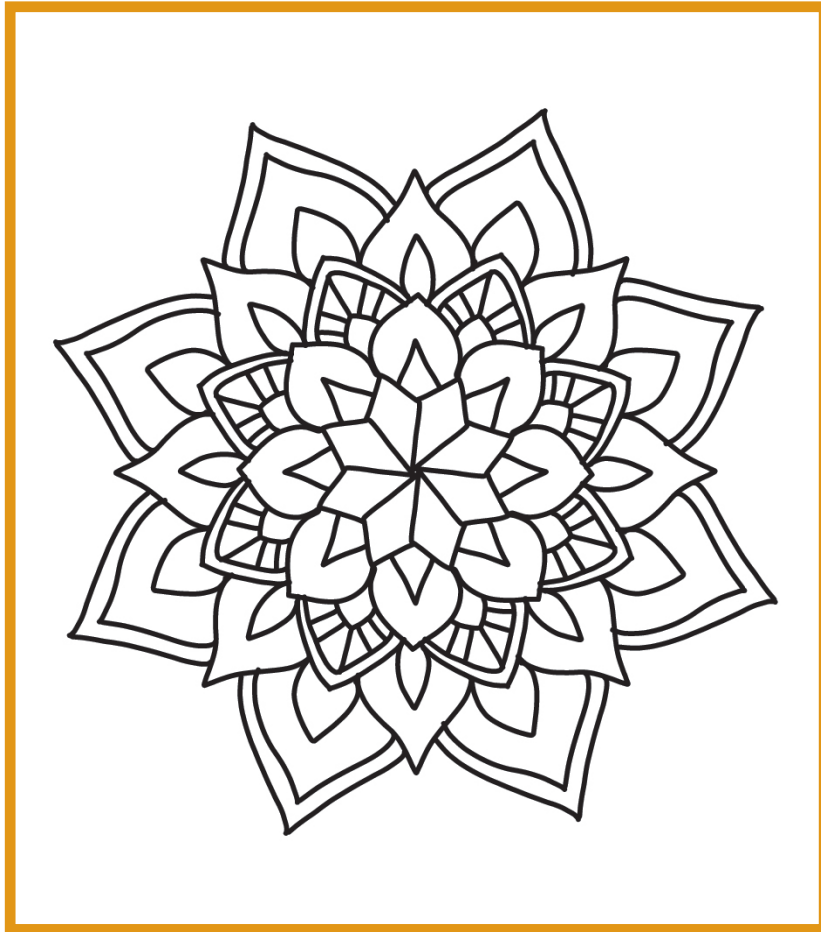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티베트 관상의 스승은 제자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어떤 단언도 하지 않는다. 그는 ‘나디는 어디에 있다’고 하지 않고 ‘생명력의 흐름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생한 심적인 상을 자신 속에서 만들어 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관상자의 의식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일정한 기능(예를 들면 호흡)이나, 그것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기관 위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의식력의 흐름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관계와 전제조건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그는 정신화된 혹은 ‘미세물질의’ 신체(산스크리트어로 sukṣmā 또는 liṅga śarīra)의 민감한 신경조직을 형성하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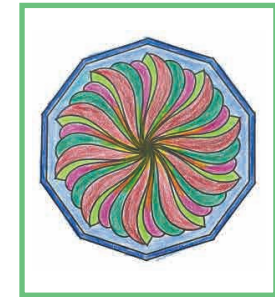
수습나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양극의 나디 흐름을 알아차린 후에 정신력의 주류를 방향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습나는 머리카락만큼 미세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때에는 온 몸이 힘의 단일한 흐름으로, 즉 모든 한계를 떨하고 온 우주를 가득 채울 정도로 커지는 최고의 영감의 불꽃이 될 정도로 광대해질 수도 있다.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박영자



▲ 서울 심봉례



▲ 서울 전추면



▲ 천안 윤서준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게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홍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게재됩니다.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보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내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마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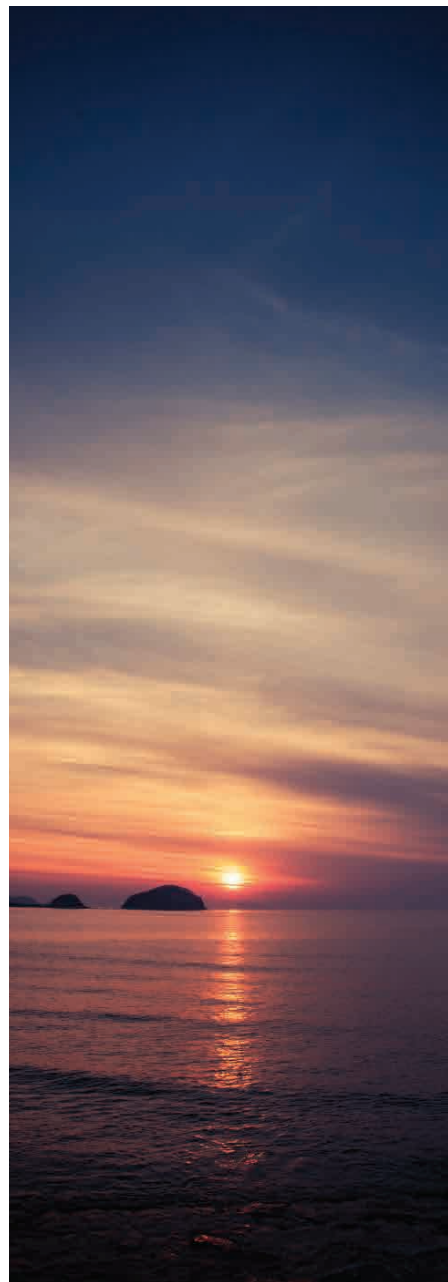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강정자	공덕성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미경	김민준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영지	김윤서	김은숙	김예곤
김종철	김현정	김희곤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박재원	박필남	반야화	배도련	법 공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승애	안종호	안한수	양진윤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유광자	유승태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자선화	장민정
장승엽	장정원	정건호	정재연	정화연	주건우
총지화	한미영	한영희	한철수		



저희 동네에는 봉어빵을 파는 아저씨가 계십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서 꺾꽂이 장사를 하시죠.

하루는 봉어빵이 먹고싶어

처음 그곳에 봉어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이상하더군요.

‘봉어빵 3개에 1000원, 1개에 300원’

3개 1000원이면 개당 333원인데,

한개에 300원이라니...

궁금증에 아저씨에게 여쭙보았습니다.

“아저씨, 가격이 이상한데요.

많이 사는 사람에게 싸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저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씀하시더군요.

“봉어빵 하나씩 사먹는 사람이 더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 한 개 밖에 주문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한 개의 가격을 낮게 잡은 것이죠.

아저씨가 파는 봉어빵만큼

세상이 훈훈해지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명확한 출처없이 퍼져있는 사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복사해 이곳저곳 올리는 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길

바라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발 행 일 총기 51(2022)년 1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상우

발 행 불교총지중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월호



사무량심

원하건데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원安樂園에 주하여 길이 안락하기를
원하건데 모든 중생이
고뇌하고 고뇌 겪을 인연 멀리 여의오며
원하건데 모든 중생이
서로 버려 여임 없이 더불어 기뻐하며
원하건데 모든 중생이
인아상을 다 버리고 원친怨親 평등하여지이다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시편 -